

영국 한국학의 발생과 발전

— 인물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연재훈*

〈차 례〉

1. 들어가기
2. 빌 스킨렌드: 영국 한국학의 효시
3. 영국 한국학의 발전
4.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학의 인기
5. 영국과 유럽의 한국학 연구학회
6. 전망과 과제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런던대학교 소아스를 중심으로 영국의 한국학 발생과 발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아스에서의 한국학 발생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셰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센트럴 링카셔 대학 등 영국 지역의 한국학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빌 스킨렌드 교수의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물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국에 한국학 교수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53년이였다. 영국에서 한국학은 다른 동양학이나 아프리카학과 마찬가지로 19세기말과 20세기초 식민지의 효율적인 경영이나 국제 정보 획득을 위한 전략적인 육성 정책으로 시작되었고 20세기 중반 이후 지역학으로서의 발전 시기를 거쳐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언어, 문학, 역사 중심의 인문학적 지식의 관심과 흥미 대신 대중문화 중심의 관심과 흥미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과학 사례연구의 일환으로서 지역학이 연구 학습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영국 한국학, 런던대 소아스, 빌 스킨렌드, 지역학

* 런던대학교(SOAS) 한국학과 명예교수

1. 들어가기

이 논문에서는 런던대학교 소아스(SOA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를 중심으로 영국의 한국학 발생과 발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한국학은 런던대학교 소아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소아스에서의 발생을 먼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셰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센트럴 랭카셔 대학 등 영국 지역의 한국학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2. 빌 스킨렌드: 영국 한국학의 효시

소아스는 물론이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학의 발생과 역사를 얘기하면서 빌 스킨렌드 교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스킨렌드의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소아스는 1916년 동양연구대학(School of Oriental Studies)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1938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된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학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왔다. 영국에 한국학 교수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53년이었고¹⁾ 소아스에 한국학 조교수(Lecturer)로 처음 부임한 사람은 빌 스킨렌드(William Skillend)였다. 스킨렌드는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일본학으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스킨렌드는 1926년 4월 26일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다. 리버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워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문학 원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²⁾ 스킨렌드는 원래 1944년 캠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고전어(Classics) 전공 장학생으로 입학했었다. 그런

1) 유럽(러시아 제외)에서 한국학 강좌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47년 네덜란드 레이든(Leiden)대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학 교수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53년 런던대학이 처음이다.

2) 스킨렌드의 이력에 대해서는 Jackson(2013), 안동준·연재훈(2016)을 참고하였다.

데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 해에 영국 정부에서 일본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생겼고 스킨랜드는 정부의 공모에 지원해서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에 설치된 영국 정보기관에 입대하여 일본군 암호 해독에 종사하는 영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했다. 정보기관에 근무할 당시 스킨랜드는 일본어 교사 에릭 시델(Eric Sidel)을 만나 처음 일본어를 배웠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에릭 시델은 1947년에 캠브리지 대학교에 신설된 일본어 전공 최초의 전임강사로 임명되었다. 1947년에 스킨랜드는 캠브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에릭 시델과 다시 만난다. 군복무 시절의 인연을 바탕으로 그는 신설된 일본학과에 지원한 최초의 학생이 되었고 1950년 일본학 전공에서 최우등(First Class)으로 졸업하고 1951년 일본학과의 박사과정에 등록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캠브리지 대학교 일본학과에서는 만엽집 연구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었고, 학위 과정 중에 소아스에 방문해서 한국의 방문학자들로부터 한국어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중 1953년에 런던대학교 소아스에 한국어 조교수(Lecturer) 자리가 신설되고 스킨랜드는 에릭 시델의 조언에 따라 이 자리에 지원해서 1953년에 부임했다.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며 1955년에 <만엽집의 어휘에 대한 연구(The Vocabulary of the Manyoshu)>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찍이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부터 왕립아시아학회(RAS: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를 설립하여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아시아 연구를 추구했다. 왕립아시아학회는 아시아 연구를 목적으로 1824년 런던에서 창립되었다. 학회지로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매년 4회 발행하는 <왕립아시아학회 저널(JRAS: The Journal of RAS)>이 있고 한국지부는 1900년에 설립되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 스킨랜드도 역시 왕립아시아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초기 한국학 개척자 윌리엄 애스톤(William Aston)이나 제임스 게일(James Gale), 리처드 러트(Richard Rutt), 게리 레드야드(Gari K. Ledyard) 등 대부분의 해외 한국학자들이 왕립아시아학회 소속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지역학의 일환으로 한국학 연구에 공헌하였다. 윌리엄 애스톤은 스킨랜드 이전의 영국의 한국학 발생에 있어서 고

려해야 할 중요한 인물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애스턴은 1859년에서 1863년까지 벨파스트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 Belfast)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을 수학하며 문헌학의 기초를 다졌다. 그는 주일본 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일본어를 익히고 문법서를 집필할 만큼 학자적 능력을 겸비한 외교관이었다. 그는 1884년에 한국 총영사로 부임하여 근무한 바 있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1879)와 <한국의 대중문학(Corean Popular Literature)>(1890) 등의 논문을 왕립아시아학회지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애스턴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 연구소와 캠브리지 대학교 애스턴 컬렉션을 남길만큼 일본과 한국의 고문헌 수집에 열의를 보였는데 그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한국 고소설의 판본 조사는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에 의해 1890년에 목록 작업이 이루어졌고 1894년에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e)>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스킬렌드가 한국학을 연구한 동기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이 아시아 지역 동양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다는 영국 학계의 배경과 영국 정부의 정책적 필요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스킬렌드가 소아스에 부임할 무렵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한국학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요구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1955년 박사 학위 취득 후 스킬렌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어문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1961년 9월부터 1962년 8월까지의 두 번째 연구년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국문과의 정병욱 교수와 이기문 교수를 만나 그들과의 교류로 본격적인 한국학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킬렌드는 한국어문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1968년 <Kodae Sosol: a stud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유럽, 북미 도서관에 소장된 전근대 한국 소설들의 목록을 집대성하고 설명한 책으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한국 전근대 문학 연구자들의 필독 자료가 되었다. 1963년과 64년 사이 1년 동안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방문교수로 머

물면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 기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학 설립에도 기여했다. 컬럼비아 대학에 본격적인 한국학 과정이 개설된 것은 스킬렌드를 객원교수로 초빙한 1963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다시 런던에 돌아온 스킬렌드는 1977년 4월에 유럽한국학회를 창설하고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89년에 런던대학에서 정년을 마쳤다.

3. 영국 한국학의 발전

초창기(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아스 한국학과에는 중국학과 일본학을 전공하면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었을 뿐 오늘날과 같은 학문 집단/공동체를 형성하지는 물론 못 했다. 이 당시 소아스에는 영국 내 다른 대학의 한국학 관심자나 국외의 학자들이 방문하여 스킬렌드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는데 후에 프랑스 파리 대학의 한국 문학 교수가 된 다니엘 부셰(Daniel Boucher) 교수나 벨파스트 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후에 소아스 교수가 된 키스 하워드(Keith Howard), 영국한국학회(British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BAKS)의 회장을 역임한 영국 도서관의 베스 맥킬롭(Beth McKillop) 등이 모두 스킬렌드 교수로부터 한국어를 수학한 학자들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한반도 이북과 이남의 정부들이 각각 코리아학의 선전과 진흥을 위해 경쟁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북의 경제력이 쇠퇴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아스 등 해외 기관에 학술 선전물을 많이 기증하거나 전파했고 이남의 정부 기관(학술진흥재단 등)에서도 뒤지지 않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북한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소장되어 있는 소아스 도서관의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이북 정부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³⁾ 1970년대

3) 소아스 도서관에서 김일성을 검색하면 125개 항목의 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ackson 2013: 5).

까지 유럽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한국학 교육기관과 학자들은 범유럽 한국학 연구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스킨렌드 교수는 한국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학자들을 위한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7년 유럽한국학회(AKSE)를 결성하게 된다. 그 발기 모임이 1977년 소아스에서 유럽에서 모인 약 40여 명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4일 동안에 걸쳐 개최되었다.

스킨렌드는 1987년 한국학 정교수(Professor of Korean Studies)로 승진하였고 소아스에 한국학연구소(Centre of Korean Studies)가 처음 설치된 것도 1987년이었다. 소아스 한국학 연구소는 학술진흥재단(Korea Research Foundation)의 지원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다. 스킨렌드 정년 한 해 전인 1988년에는 마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교수가 한국학 부교수(Senior Lecturer)로 부임해 소아스 한국학의 제2기를 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이힐러 교수는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이힐러 교수는 조선시대 역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고⁴⁾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 그의 제자들이 현재 세계 각지의 한국학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스킨렌드가 정년퇴임하던 1989년에는 소아스 한국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킨렌드 후임으로 조교수(Lecturer)와 전임강사(Training Fellow)직을 공고했다. 소아스에 한국학 학부 전공이 개설된 것도 1989년이었다. 그리하여 1989년 전임강사로 필자가, 1990년 조교수로 러스 킹(Ross King) 박사가 부임하여 소아스 한국학의 발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연이어 1991년 한국 미술사 조교수로 박영숙 교수, 한국음악학 조교수로 키쓰 하워드 교수가 부임하여 소아스 한국학의 전성기를 이루어 나갈 토대를 마련한다. 도이힐러, 박영숙 교수 등이 은퇴한 이후 2000년부터는 조선시대 전공의 안더스 칼슨(Anders Karlsson)⁵⁾ 교수, 한국 문학의 그레이스 고(Grace Koh) 교수, 한국

4) 도이힐러 교수는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rian Envoys(1978),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1992), Under the Ancestors' Eyes(2015) 등의 역작을 남겼다.

5) 안더스 칼슨 교수는 도이힐러 교수의 후임으로 조선시대 정치, 사회 법제사가 전공이다.

미술사 전공의 샬롯 홀릭(Charlotte Horlyck)⁶⁾ 교수, 경제사 및 북한 사회 전공의 오웬 밀러(Owen Miller)⁷⁾ 교수 등이 차례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소아스 한국학과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는 영국에 소아스 말고도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은 주로 셰필드, 리즈, 뉴카슬, 덜험 대학 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중심의 한국학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었다. 영국 동북부를 중심으로 Yorkshire and Northumbria Korean Studies (YANKS)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들은 주로 남북관계 및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모임의 주도적 멤버 중의 하나였던 리즈(Leeds)대학교의 에이든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는 최근까지만 해도 언론 기고 활동이나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영국 내 남북문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주북한 영국 초대 대리대사를 역임하고 소아스에서 북한학을 강의하기도 했던 제임스 호어(James Hoare) 박사도 있다.

셰필드 대학교에 한국학 조교수 자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셰필드 대학에 한국학 과정이 설치된 것은 1979년 산학 재단으로부터 5년간의 기금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87년에 연세대학과 학생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에 처음으로 학위과정을 개설하였다. 원래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었다가 한국학과 인연을 맺은, 한국 종교 연구가 전공인 제임스 그레이슨(James Grayson) 교수가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다가 오래 전에 은퇴했다. 한-영 비지니즈 관계 연구가 전공인 주디스 체리(Judith Cherry) 교수도 오랜 기간동안 셰필드에서 한국어와 한국 비즈니스 등을 강의하였고 영국 왕실로부터 이 분야에 공헌한 공로로 표창(MBE: Member of British Empire)을 받기도 했다. 역시 지금은 은퇴했다. 그 후 영화학, 국제정치 등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셰필드

6) 샬롯 홀릭 교수는 박영숙 교수의 후임으로 고려시대 미술사가 전공이다.

7) 오웬 밀러 교수는 조선시대 경제사 연구가 전공이고 동아시아 유물론과 남북관계 연구에도 업적을 내고 있다.

대학을 거쳐갔고, 현재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민족음악학 등을 전공하는 젊은 교수들이 세대교체를 이루어서 셰필드 대학 한국학의 제2 전성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옥스포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는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의 지원으로 1994년부터 시작되었는데,⁸⁾ 아직 한국학 단독으로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없고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부전공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1996년 처음으로 한국학 석사 학위 학생을 배출한 이후 현재는 매년 3~4명의 석사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다. 대학 측에서도 학부 과정의 한국학을 독립된 학위 과정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학 전공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국학 일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고, 한국 어문학과 한국 역사를 전공하는 석사,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이 있다. 석사 과정의 한국 역사 및 전근대 문학은 하와이 대학에서 학위를 한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 교수, 언어학은 지은 케어(Jieun Kiaer)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도 옥스포드의 뒤를 이어 2000년경부터 한국학 전임 자리를 신설하고 한국학 강의를 개설하였지만 한국어 강의는 시간 강사가 맡고 있다. 한국학 전임이 아직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옥스포드에 비하면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다.

덜햄 대학의 한국학 연구 역사는 전통 한국 음악 강좌가 시작된 197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강좌는 1980년대에도 계속되어 좀 더 포괄적인 한국 역사와 문화 강좌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 전통 음악과 궁중 음악의 전문가인 프로바인(Robert Provine) 교수가 음악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 원래 중국학 전문가로서 한국학 연구에도 업적을 남긴 키쓰 프라트(Keith Pratt) 교수도 영국 한국학회(BAKS)의 회장을 역임하며 영국 내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일본 고고학 전문가이면서 한국 고고학에 관심을 보였던 지나 반즈

8) 옥스포드 대학교 한국어 강의와 시간강사(lectorsip) 자리는 대학의 재정 지원으로 1987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ina Barnes) 교수가 동아시아학과와 교수로 임용되면서 이 대학의 한국학 연구가 더 활기를 띤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1991년에는 뉴카슬 대학이 경희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으면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었다. 1991년에는 한국학술진흥 재단이 그리고 그 후부터 1996년까지는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어 과정이 운영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까지도 영국의 한국학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덜힘, 뉴카슬 대학의 한국학 과정이 폐지되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옥스포드 대학도 한 때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국학이 위기에 몰렸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어언어학 자리가 신설되면서 현재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부침을 거듭하던 한국학이 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한류가 확산하고 케이팝의 열풍이 유럽에도 전파되던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4.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학의 인기

2010년대 초반 센트럴랑카셔 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신설되었는데 현재는 한 학년의 학생 수가 10명에 가까운 정도로 발전하였다. 센트럴랑카셔 대학은 한국학 연구소에서 북한학 석사 과정을 개설했고 학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중심의 언어문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세종학당도 함께 운영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학 석사과정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임소진 교수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고 한국어 교육 중심의 학부 과정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음성학 전공의 전해성 교수와 소아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화용론 전공의 천시(Chen Xi) 교수를 비롯한 전임 교수 및 한국어 강의전담 교수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도 한국학 전공 석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한국 정치학 전공의 김영미 교수가 주축이 되어 학부 과정을 개설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요크의 존스 대학 등에서도 한국어 학부 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어교육 전공의 한예지 교수가 부임하여 한국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코벤트리 대학에서도 한국학 센터를 만들어 황은주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학 강좌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코벤트리 대학은 한국학의 틈새분야 중 경영학과 경제학 분야에 집중하여 한국학 연구와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다. 경영학과 경제학을 중점으로 둔 한국학 과목을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스쿨에서만 일년에 100명이 넘는 코벤트리 학생들이 한국의 파트너 대학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와 학생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코벤트리 대학 한국 센터는 2020년 10월 9일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s Global Position)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도 했다(황은주 2019).

소아스는 마티나 도이힐러, 박영숙, 키쓰 하워드 교수 등 한국학 1세대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학문후속세대들이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문학(Grace Koh), 역사(Anders Karlsson, Owen Miller), 미술사(Charlotte Horlyck) 등의 한국 인문학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남북관계 등을 전공하는 사회과학 전공자들을 포함해서 한 때는 10여 명의 한국학 전공자들이 한국학연구소의 중심 멤버로서 유럽 최대의 한국학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왔다.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여러 명의 교수진을 잃기는 했지만 동아시아 학과와 한국학 연구소 중심으로 연구의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학생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부터 중국학 신입생의 숫자를 능가했고 2020년 신입생 수는 일본학과 신입생도 추월하여 동아시아학과 뿐만 아니라 소아스 전체에서 가장 신입생이 많은 언어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자가 부임한 1989년 한국학 신입생의 숫자가 전공 1명, 부전공 2명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괄목상대/경천동지할 만한 성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입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학과를 포함한 언어문화학부는 지속되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항상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역

학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언어문화학부는 신입생이 아무리 많아도 법,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학부 학생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고 전공에 필요한 언어교육을 위해서는 인적 경제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부담을 준다.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시장경제화된 21세기 대학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영국과 유럽의 한국학 연구학회를 간단히 소개하고 영국 한국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5. 영국과 유럽의 한국학 연구학회

한국학 연구 학회로는 영국 내에 영국 한국학회가 있고 유럽에 유럽한국학회, 유럽한국어교육자 협회가 있다.

1) 영국 한국학회(BAKS: British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영국 내에서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교수, 외무성 전현직 직원, 학생 및 일반인들로 구성된 한국학 연구 학회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모임이다. 2년에 한 번씩 학술 대회를 개최하며 학술 대회가 없는 해에는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연다. 1995년에 영국 내 일본학회, 중국학회와 공동으로 뉴카슬 대학에서 ‘제1회 동아시아 공동 학술 대회(Joint Conference on East Asian Studies in Britain)’를 개최하였고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한국학회 학회지인 ‘Paper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제7권)에 실렸다. 그 이후 2~3년에 한 번씩 일본, 중국 학회 등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BAKS의 학회지는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매년 2회씩 발간된다. 영국 한국학회의 현재 회장은 런던 소아스 대학교의 샬롯 홀릭 교수가 맡고 있다.

2) 유럽 한국학회(AKSE: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in Europe)

유럽 지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앞서도 언급된 유럽 한국학회(AKSE)가 있다. 이 학회는 1975년에 스킬렌드 교수가 프리츠 포스(Frits Vos), 다니엘 부셰, 마티나 도이힐러, 로무알드 후스차(Romuald Huszcza), 이옥 교수 등과 함께 모여 만든 유럽 학술회이다. 1년에 한 번씩 동/서 유럽 한국학 교수들이 모여 연구 발표를 하다가 1990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학술 대회를 열고 있는데, 유럽 한국학회에는 이제 유럽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한국학 연구자들도 참가하여 연구 발표를 한다. 가장 최근의 학술 대회는 2019년 로마 라사피엔자 대학에서 열렸고 다음 대회는 2021년 프랑스의 라로셀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유럽 한국학회의 회장은 독일 보훔 대학의 마리온 에거트(Marion Egert) 교수이다.

3) 유럽 한국어교육자협회(EAKLE: European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 강사들의 모임으로 유럽 한국어교육자협회(EAKLE)가 있다. 2007년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발족한 후, 2008년 터키 앙카라 대학, 2010년 런던대 소아스, 2012년 체코 찰스대학, 2014년 이태리 베니스 대학, 2016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2018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 2020년 프랑스 마르세유 대학(온라인)에서 각각 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2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열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류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의 로무알드 후스차 교수가 맡았고 현재는 헬싱키 대학의 김정영 교수가 회장으로 있다.

6. 전망과 과제

2010년대 후반을 전후해 한국학의 인기는 케이팝과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대학 신입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한국학의 학문적 성과는 얼마나 내실 있게 지속 발전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 있다. 특히 소아스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증폭된 대학 재정 부족으로 2020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한국학과 신입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은 다른 지역학들과 함께 전면적인 교과과정의 개편에 돌입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식민지의 효율적인 경영이나 국제 정보 획득을 위한 전략적인 육성 정책으로 시작된 동양학과 아프리카학이 20세기 중반 이후 지역학으로서의 발전 시기를 거쳐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 문학, 역사 중심의 인문학적 지식의 관심과 흥미가 감퇴하고 그 대신 영화나 대중문화 중심의 관심과 흥미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과학의 사례연구(케이스 스터디)의 일환으로서 지역학이 연구 학습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교육도 학문이나 언어학으로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과목으로 전략(?)하여 강의 전담 교수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 소아스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소수/특수 언어들이 폐지되는 변화도 위에서 말한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문학과 역사도 한국학 단독으로 개설되던 전통적인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전체 강의의 일부로 개편되고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영화, 미디어 과목들로 대체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추세를 선악이나 당위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대학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의 위기와 변화는 앞으로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변화와 적응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당분간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영국 내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차세대 양성 문제

한국학을 전공하는 차세대 유럽 현지인 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학부 과정 신입생들의 숫자는 괄목상대할 정도로 증가하였지만 석박사과정 연구자들의 숫자는 아직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젊은 연구자들이 전임교수가 될 때까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박사후 과정 펠로우십을 확대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한국학 교수직 설치

차세대 유럽 현지인 연구자를 위한 조교수직 설치와 현지 대학의 지원을 당분간 유지, 확대해야 한다. 물론 영국 및 유럽 정부와 대학 스스로 한국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전문가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유럽 대학 내에서 현재와 비슷한 체제와 지위로 당분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현지인 연구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조교수직 설치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극도의 시장만능주의 체제 아래서 대학의 인문학이나 지역학이 고사하거나 축소되는 시기가 온다면 단순한 한국 정부나 재단의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학 교수직이 개설되었을 때 그 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연구 업적을 많이 생산해 왔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가 많이 있어야 한다.

3) 한국학 내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치 문제 및 언어교육자의 지위 문제

한국학 안에서 한국어학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학 전임 교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어학 교수 자리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고⁹⁾ 언어교육은 강의 전담 교수들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강의 전담 교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은 석/박사 과정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언어 교육자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학 연구 대상으로서의 언어학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언어교육은 도구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지도 모른다.

4) 한국학 분야별 연구자의 질적-양적 성장의 문제

한국학 연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자들의 질적-양적 자원 확보 문제를 고민할 단계가 되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한국학 연구자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지만, 중국학, 일본학과 더불어 동아시아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학술지를 발간할 경우 한국학의 양적 질적 수준은 아직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학, 일본학에 견줄 수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의 질적-양적 성장이 필요하다.¹⁰⁾

9) 현재 한국어학 교수 자리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과 센트럴 랑카셔 대학뿐이다. 그나마도 센트럴랑카셔 대학에는 박사과정이 없으므로 한국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옥스포드 대학 뿐이다. 유럽에서도 한국어(교육)학 전임 자리가 설치된 대학은 파리 7대학, 라로셀 대학, 비엔나 대학, 체코 찰스 대학, 헬싱키 대학, 바르샤바 대학 정도 등이다.

10)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그 저변이 아직 넓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영구한국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 순수하게 한국을 전공한 학자도 아주 많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나 일본을 전공하다가 개인적인 관심이나 연구비 수혜 기회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학에도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깊이 있는 한국학 연구를 위해서는 1차 자료의 이용을 위해서 한국문헌의 해독 능력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 학자임을 자처하는 학자들 중에도 한국어의 실력이 모자라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비단 영국이나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5) 한국학 분야별 균형의 문제

사회과학 및 인문학, 인문학 내에서 역사, 문학 및 어학, 전근대 및 근대 역사/문학/언어, 고전문학 대 현대문학의 균형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학의 분야별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북미 한국학과 유럽 한국학의 전통이나 현황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유럽은 북미에 비해서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수요가 부족하고, 반면 전근대 역사 전문 연구자들은 북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6)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이론과의 갈등

유럽 대학에서 한국학은 보통 지역학으로 개설되어 있고, 가끔 사회과학, 언어학 등 이론 학문과 방법론 등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학과 이론 학문의 긴장 관계를 생산/발전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학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7) 학부 과정 전공 학생 수의 문제

영국 및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 전공 학생들의 숫자가 충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학문적인 접근과 노력뿐만 아니라 한류나 케이팝 등 대중문화의 인기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국학의 관심을 유지하고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미학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학 박사과정의 젊은 학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의 한국학 연구 대학들을 더 내실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김 영, 『영국에서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동향』, 『한국학연구』 21, 2009, 419~440.
- 안동준·연재훈, 『고소설 담론의 계보학: 윌리엄 스킬랜드 <고대소설>의 연구사적 의의』, 『남명학연구』 52, 2016, 121~170.
- 연재훈,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2(3), 1999, 79~99.
- 연재훈, 『유럽 한국어교육의 쟁점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 1(2), 2016, 1~30.
- 최진실, 『영국에서의 한국학 및 한국어 연구와 교육 - 교육과정과 담당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46, 2016, 31~54.
- 황은주, 『영국 내 한국학 현황 및 전망』, 『한국학진흥사업단 뉴스레터』,
<http://ksps-news.aks.ac.kr/news_view.jsp?pg=0&ncd=328>, 2019.6.28.
- Deuchler, Martina, “Professor William Skillend - Pioneer of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Britain who brought his fellow scholars together”, *The Times*, 30 March 2010.
- Jackson, Andrew David, “Introduction: Sixty years of Korean Studies at SOAS”, *Key Papers on Korea: Essays Celebrating 25 years of the Centre of Kore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Global Oriental, 2013.
- Skillend, W. E. “Chong Pyonguk, Friend and Teacher”, 『백영 정병욱의 인간과 학문』, 신구문화사, 1997.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UK

– Focusing on Peopl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

Yeon, Jaehoon*

In this pape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UK have been reviewed with special focus on SOAS University of Lond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t SOAS was first examined, and additionally,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UK such as Sheffield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and Central Lancashire University were mentioned. Starting from looking at the career and achievement of Professor Bill Skillend, who was the pioneer of Korean studies in Europe as well as in the UK, I looked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studies focusing on peopl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UK. It was in 1953 that the first professorship in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In Britain, Korean studies, like other Asian and African studies, began as a strategic fostering polic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lonies and as a tool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acquisition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n Studies has developed as an area studies in 20th century and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in the 21st century. It seems that instead of the interests in the humanities knowledge centered on language, literature, and history, the interests centered on popular culture are gradually taking their place. Furthermore, regional

* Professor Emeritus of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SOAS University of London

studies are being studied and considered as part of case studies of social science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Key words: Korean studies in the UK, SOAS University of London, Bill Skillend, area studies